

간호원의 간호복장에 대한 견해조사 연구

조 영 숙

(철도간호전문대학)

— 목 차 —

I. 서 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B. 용어의 정의
- C. 연구의 한계

II.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B. 연구도구
- C. 자료분석방법 및 절차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A. 간호원의 인구사회적 특성
- B. 간호원의 근무종 복장실태
- C. 병원의 간호복장 허용도
- D. 간호원의 간호복장에 대한 견해
- E. 간호복장에 대한 견해와 상관관계가 있는 일반적 특성간의 유의도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의 구조나 규범이 변해감에 따라 복장에 대한 변모도 그 양상을 달리 해 가고 있다. 최근 문교부가 발표한 (1982. 1) 중고등학교 학생의 복장자율화등은 개인의 개성과 기호를 존중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복장에 있어서도 이미 외국에서는 여러가지의 변형된 간호복장의 변모를 화면이나 잡지를 통해 접하게 된다. 이는 간호복장에 있어서 자율화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1950년대의 간

호복장규범이 그대로 강조되어 오고 있으면서도 많은 간호원들이 복장중에서도 켈이나 유니폼, 셋타, 구두 등 몇몇가지는 썩은 종래 간호복장규범에 위반되고 있는 사례를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간호원들이 각자 그들 취향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복장규범을 세로이 불문율로 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보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종래의 간호복장규범(윤수복 1965)을 살펴보면, 더럽혀진 유니폼의 것에서 내뿜어지지 않게 짧아야하며 요란스럽거나 이상한 머리모양은 삼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목걸이는 보이지 말 수 없고 반지도 걸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장식이 달리지거나 큰 머리핀은 착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짙은 졸업한 학교의 지정된 켈을 쓰며 셋타는 흰색, 검은색 콘색만 착용할 수 있고 양말 역시 살색이나 흰색의 긴 양말만 신을 수 있으며 손톱은 길지 않게 자르고 투명한 흰색만 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구두는 슬리퍼나 장식 달린 구두, 굽이 높은 구두는 신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병원의 간호행정이 역시 간호복장허용의 한계를 어느 수준까지 용납한 것인지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한 병원에서도 근무하는 간호원 개인간에도 복장허용도에 대한 인식이 제각기 달라 다소의 혼란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간호원의 윤리강령(이영복 1972)에서도 간호원의 외모를 단정히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되었으며 간호원이 복장 단정하고 활동적이며 안정감을 주어야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신뢰감을 일으킨다(대한간호협회홍보부1972)는 것은 간호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본원칙에 덧붙여 사회의 흐름과 간호원의 요구에 부응한 개성있고 효율적인 새로운 복장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간호복장에서의 문제점이나 간호원복장규범을 다룬 연구가 본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전혀 없었고 또한

참고자료 역시 고찰상대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새로운 복장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근무시의 복장실태를 파악한다.
2. 임상병원에서의 간호복장허용도를 파악한다.
3. 간호원들의 복장에 대한 견해를 규명하고 이에 영향력있는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성을 검토한다.
4. 종래의 간호복장규범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부를 규명한다.

B. 용어의 정의

1. 규범 : 恩 惟, 의지(意志) 감정등이 일정한 이상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따라야 할 법칙과 원리를 의미한다(이희승 1968)
2. 견해 :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지를 평가하는 개인의 경향을 의미하는(Woolf 1973)에 본 조사에서는 간호원의 복장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3. 태도 : 특정한 의견을 형성하는 사전경향 또는 준비체제로서 여러가지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나 견해에 영향주고 나아가서 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준비체제이다(김정술 1980)

C. 연구의 한계

본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1. 본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관계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신뢰도를 검증하지 않았다.
2.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일부병원에 한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1982년 2월 1일부터 동년 3월 2일까지 약 3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두어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대학병원과 국립병원 각각 2곳씩 4곳을 임의 선정하여 그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원 21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층 질문지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 및 추후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을 제외한 191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60 대한간호 제21권 제2호 통권 115호

B.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기존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질문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종사자와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다. 질문지의 작성과정에 있어서 예비조사는 간호원 12명에게 실시하였고 질문내용의 응답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응답내용을 분석한 후 의미가 분명치 않은 질문내용은 수정 보완해서 되도록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다.

사용된 질문지의 내용은 총 47문항으로서 1부에서는 간호원의 일반적인 특성(8문항), 근무시의 복장실태(6문항) 및 병원의 간호복장허용도(7문항)에 관해 모두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부에서는 간호복장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는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 자료분석방법 및 절차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S.P.S.S.(Nie, Hull, Steinbreuner and Bent 1975)에 의한 일련의 컴퓨터 계산에 의해 분석 및 처리되었다.

간호원의 태도 평정척도방법으로는 26문항 각각을 열렬한 긍정에서 부정까지의 범위가 되어 반응할 수 있는(Likert-Type) 3단계 평정으로 나누었다.

반응에 대한 배점은 응답이 종래의 간호복장규범만을 고수하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을 때는 0점,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냈을 때는 1점, 종래의 간호복장규범에 불만족하며 변화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을 때는 2점, 종래의 규범에서 탈피하여 진척적으로 변화 개선되어야 한다는 강한 증정을 나타냈을 때는 3점을 주어서 각자의 평점을 각 질문에 대한 총수(Total Response)로 집계하여 평균치(Mean)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일반적 특성 및 간호원의 복장규범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집단변로 백분율, 산술평균(Mean) 표준편차(S.D.) 및 F-Test를 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A. 간호원의 인구사회적 특성

간호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근무병원, 교육, 연령, 근무분야, 임상경력, 직위, 결혼상태, 종교를 조사하였다.

간호원의 일반적 특성을(표 1참조) 살펴보면 대상자의 근무기관의 분포는 국립기관대상자는 107명 사립기

〈표 1〉 조사대상 간호원의 인구사회적 특성

()=percent

인구사회적 변 인	국립병원 N= 107(%)	사립병원 N= 84(%)	전 계 N= 191(%)
교육			
간호전문대학	93(86.9)	23(27.4)	116(60.7)
간호대학	2 (1.9)	53(63.1)	55(28.8)
대학원	1 (0.9)	7 (8.3)	8 (4.2)
기타	11(10.3)	1 (1.2)	12 (6.3)
연령			
25세이하	33(30.8)	11(13.1)	44(23.0)
26~29세	51(47.7)	39(46.4)	90(47.1)
30~39세	14(13.1)	29(34.5)	43(22.5)
40세이상	9 (8.4)	5 (6.0)	14 (7.3)
근무분야			
내과	10 (9.3)	13(15.5)	23(12.0)
외과	9 (8.4)	14(16.7)	23(12.0)
산부인과	8 (7.5)	13(15.5)	21(11.0)
소아과	1 (0.9)	11(13.1)	12 (6.3)
정신과	50(46.7)	3 (3.6)	53(27.7)
기타	29(27.1)	30(35.7)	59(30.9)
임상경력			
1년미만	13(12.1)	3 (3.6)	16 (8.4)
1~3년	31(29.0)	23(27.4)	54(28.3)
3~5년	29(27.1)	17(20.2)	46(24.1)
5~7년	10 (9.3)	21(25.0)	31(16.2)
7년이상	24(22.4)	19(22.6)	43(22.5)
무응답	0 (0.0)	1 (1.2)	1 (0.5)
직위			
평간호원	86(80.4)	66(78.6)	152(79.6)
수간호원	17(15.9)	14(16.7)	31(16.2)
감독이상	4 (3.7)	4 (4.8)	8 (4.2)
결혼상태			
미혼	74(69.2)	31(36.9)	105(55.0)
기혼	33(30.8)	53(63.1)	86(45.0)
종교			
기독교	41(38.3)	40(47.6)	81(42.4)
천주교	13(12.1)	11(13.1)	24(12.6)
불교	11(10.3)	3 (3.6)	14 (7.3)
무교	41(38.3)	28(33.3)	69(36.1)
기타	1 (0.9)	2 (2.4)	3 (1.6)

관례상자는 84명이었다. 교육배경은 간호전문대학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0.7%로 가장 많았고 간호대학이 28.8%, 대학원이 4.2%로 가장 적었으며 연령분포는

26세에서 29세가 47.1%로 가장 많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야는 정신과 분야가 전체의 27.7%로서 가장 많았고 소아과가 6.3%로 가장 적었다. 임상경력은 1년에서 5년 사이가 총 52.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직위에서는 평간호원이 79.6%로서 수간호원(16.2%)이나 감독(4.2%)보다 훨씬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55.0%)이 기혼(45.0%)보다 다소 많았다.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무교(36.1%), 천주교(12.6%), 불교(7.3%)의 순이었다.

B. 간호원의 근무시 복장실태

〈표 2〉 조사대상간호원의 근무시 복장실태

()=percent

내 용	국립병원 N= 107(%)	사립병원 N= 84(%)	전 계 N= 191(%)
헤어스타일			
짧은머리	52(48.6)	48(57.1)	100(52.4)
중간머리	30(28.0)	28(33.3)	58(30.4)
올린머리	25(23.4)	8 (9.5)	33(17.3)
켈			
쓴다	107(100.0)	67(79.8)	174(91.1)
안쓴다		17(20.2)	17 (8.9)
화장			
한다	74(69.2)	59(70.2)	133(69.6)
하지않는다	33(30.8)	25(29.8)	58(30.4)
악세사리			
한다	46(43.0)	47(56.0)	93(48.7)
하지않는다	61(57.0)	37(44.0)	98(51.3)
유니폼유형			
원피스	102(95.3)	79(94.0)	181(94.8)
바지·투피스	5 (4.7)	5 (6.0)	10 (5.2)
스웨타색깔			
지정된 색깔	60(56.1)	35(41.7)	95(49.7)
부드러운색깔	40(37.4)	49(58.3)	89(46.6)
강력한 색깔	7 (6.5)	0 (0.0)	7 (3.7)

간호원의 임상근무시의 복장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표 2 참조) 근무중 헤어스타일은 「옷깃에 닿지 않는 짧은 키-트형」이 52.4%로서 가장 많았고 「옷깃을 다소 덮은 정도의 중간머리형」은 30.4%, 「긴 머리를 올린 머리」17.3%의 순이었으며 올린 머리는 사립병원(9.5%)에서 보다는 국립병원에서(23.4%) 더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 켈을 쓰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켈을 쓴다가

총 응답자의 91.1%로써 대다수였는데 국립기관에서는 100%전원이 썬을 쓴다고 반응한데 비해 사립기관에서는 20.0%가 썬을 쓰지 않는다고 반응해 국립에서 보다 복잡규범을 엄격히 지키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임상근무를 위해 화장을 「한다」가 69.6%였고 「하지 않는다」가 30.4%로서 화장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근무시 목걸이나 귀걸이 또는 반지등의 악세사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51.3%)와 「한다」(48.7%)가 비슷한 반응분포를 보였으나 국립기관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사립기관에서는 「한다」(56%)는 쪽으로의 반응이 다소 높았다.

어떤 형태의 유니폼을 입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피스만 입는다」가 94.8%로서 「바지나 투피스도 입는다」(5.2%)보다 절대적으로 많았다.

스웨타 색깔에 있어서는 「꼭 병원에서 지정해준 색깔만 입는다」(49.7%)가 반수정도 되었으며 나머지 50.3%는 「병원에서 지정한 색이 아니더라도 부드러운 색깔을 입는다」(46.6%) 또는 「강력한 색깔도 입고 있다」(3.7%)라고 반응하여 요즘의 간호원들은 병원의 규율 못지않게 자신의 기호를 따르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C. 병원의 간호복장 허용도

간호복장에 있어서 조사대상기관의 헤어스타일 허용도는 「유니폼의 것에 닿지 않아야 한다」라고 반응한 응답자가 전체의 52.9%로서 제일 많았는데 사립기관(39.3%)보다 국립에서 훨씬 더 높은 반응(63.6%)을 보인 것은 국립에서 종래의 복잡규범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병동에서 썬에 대한 실시는 「반드시 썬을 써야 한다」라고 대다수(88%)가 인식하고 있었고 국립기관의 경우는 절대수(97.2%)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한편 사립기관에서는 23.8%가 「썬의 사용을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반드시 썬을 써야 한다」고 응답한 76.2%의 반응 중에서도 단, 중환자실, 이기방, 분만실, 정신과, 소아과 병동은 제외한다라고 응답해 썬착용은 역시 사립보다 국립에서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악세사리 사용규제에 있어서는 「악세사리의 사용은 되도록 금하는 편이다」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과반수(50.3%)였으며 「요란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는 허용한다」44%, 「악세사리의 사용을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

〈표 3〉 조사대상 임상기관의 간호복장허용도

()=percent

내 용	국 립	사 립	전 체
	N=107(%)	N=84(%)	N=191(%)
헤어스타일			
옷깃에 닿지 않아야	68(63.6)	33(39.3)	101(52.9)
옷깃을 다소 덮는 정도	31(29.0)	39(46.4)	70(36.6)
단정하면 긴머리라도	5(4.7)	7(8.3)	12(6.3)
자유에 맡김	3(2.8)	5(6.0)	8(4.2)
썬			
반드시 써야함	104(97.2)	64(76.2)	168(88.0)
자유에 맡김	3(2.8)	20(23.8)	23(12.0)
악세사리			
금하는편	58(54.2)	38(45.2)	96(50.3)
요란치 않은 범주	45(42.1)	39(46.4)	84(44.0)
자유에 맡김	4(3.7)	6(7.1)	11(5.7)
유니폼유형			
원피스만 허용	64(59.8)	22(26.2)	86(45.0)
자유에 맡김	43(40.2)	61(72.6)	104(54.5)
무용탈	0(0)	1(1.2)	1(0.5)
유니폼색상			
흰색만 될	100(93.5)	38(45.2)	138(72.3)
다른색도 허용	7(6.5)	46(54.8)	53(27.7)
스웨타색상			
흰색, 검은색, 군색	57(53.3)	29(34.5)	86(45.0)
요란치 않은 범주	15(14.0)	32(38.1)	47(24.6)
자유에 맡김	35(32.7)	23(27.4)	58(30.4)
복장규범을 어겼을때			
근무정정에 고려	4(3.7)	14(16.7)	18(9.4)
주의를 받음	99(92.5)	65(77.4)	164(85.9)
관여치 않음	4(3.7)	5(6.0)	9(4.7)

는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국립간 또는 사립간에도 반응이 양분되어있는 것은 간호복장에 대한 인식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간호원 유니폼 유형에 대해서는 「원피스나 투피스 또는 바지 스타일중 각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전체의 54.5%였으며 국립(40.2%)에서 보다는 사립에서(72.6%)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니폼의 색깔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72.3%, 국립에서는 거의 대다수(93.5%)가 「흰색에만 한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사립에서는 오히려 「병동의 특색에 따라 다른색(핑크색...)도 허용하고 있다」는 반응이 과반수(54.8%)이상으로써 국립에서와는 상반된 대조, 즉 국립에서는 철저히 종래 복장 규범을 강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스웨터 색깔의 허용도는 전체 응답자의 45%가 「흰색이나 검은색 끈색에만 한한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것 역시 사립(34.5%)보다는 국립(53.3%)에서 더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각자의 취향에 맡겨 규제치 않는다」(30.4%), 「요란하지 않은 색상만 무관하다」(24.6%)의 순이었는데 이처럼 응답자의 반응분포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같은 병원내에서도 병원의 복장허용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호원복장규범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견될 때마다 윗사람이 주의를 준다」가 85.9%로써 대다수였으며 이는 국립에서(92.5%) 사립(77.4%)보다 다소 높았다.

D. 간호원의 간호복장에 대한 견해

간호복장의 항목에 따른 반응비율분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4참조).

1. 헤어스타일에 대한 반응분포

종래의 헤어스타일규범에 대해서는 만족(42.9%)보다 불만족이라는 반응(51.3%)이 높았다. 현재의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간호원복장규범에 따라서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자신의 헤어스타일이 간호원복장규범에 위반되고 있다고 반응한 사람중의 62%가 「어울리지 않아서」라고 반응하였다. 종래의 헤어스타일규범에 있어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가에 관해서 「이상형은 정해놓되 강제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과반수이상이었으며 그 외의 응답자 역시 전체적 또는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헤어스타일에 대한 규제가 자유스러워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고 반대는(3.1%)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상적인 간호원의 헤어스타일은 간호수행에 방해가 되지않고 단정한 범위내에서 자신의 개성대로 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82.2%)였다. 헤어스타일 전반에 걸쳐서 볼 때 헤어스타일에 대한 총평균치는 중립적인 태도(6점)보다 높은 10.34로써 이는 간호원들이 종래의 규범에 불만족하며 규범의 재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불만족은 사

〈표 4-1〉 헤어스타일에 대한 반응

()=percent

내 용	국립	사립	전체
	N=107	N=84	N=191
1. 종래 헤어스타일 규범			
만족	43(40.2)	39(46.4)	82(42.9)
불만족	61(57.0)	37(44.0)	98(51.3)
생각해본적 없다	3 (2.8)	8 (9.5)	11 (5.8)
2. 현재의 머리모양을 고수하는 이유			
간호원 복장규범에 따라	65(60.7)	35(41.7)	100(52.4)
나에게 어울리니까	42(39.3)	49(58.3)	91(47.6)
3. 헤어스타일 규범을 위반했다던 그 이유			
어울리지 않아서	56(52.3)	29(34.5)	85(44.5)
바빠서	18(16.8)	14(16.7)	32(16.8)
관심이 없어서	10 (9.3)	10(11.9)	20(10.5)
위반사항 없음	23(21.5)	31(36.9)	54(28.3)
4. 종래 헤어스타일 규범의 개선점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	16(15.0)	10(11.9)	25(13.1)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	38(35.5)	26(31.0)	64(33.5)
강제성은 배제되어야 함	53(49.5)	48(57.1)	101(52.9)
5. 헤어스타일의 자유화			
찬성	64(59.8)	44(52.4)	108(56.5)
고려	41(38.3)	36(42.9)	77(40.3)
반대	2 (1.9)	4 (4.8)	6 (3.1)
6. 이상적인 헤어스타일			
종래의 규범대로	19(17.8)	15(17.9)	34(17.8)
개성대로	88(82.2)	69(82.1)	157(82.2)
총평균치	9.74	8.64	10.34
총표준편차	3.61	4.56	5.58

립(8.64)보다 국립(9.74)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표 4-1 참조).

2. 켈에 대한 반응분포

켈착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자가 과반수 이상(61.8%)이었으며 그 이유는 간호원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반응했다. 켈착용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20.9%)보다 「찬성」(41.9%)과 「고려해 본만하다」(37.2%)가 많았다. 이상적인 켈착용의 방향에 있어서는 「받드시 써야 한다」(45.0%)라는 종래의 규범을 따르는 반응보다는 「간호수행상 안 쓰는 것이 더

〈표 4-2〉

켈에 대한 반응

()=percent

내 용	국 립 N=107	사 립 N=84	전 체 N=191
1. 켈착용			
반쪽	76(71.0)	42(50.0)	118(61.8)
불반쪽	29(27.2)	42(50.0)	71(37.2)
생각해 본적 없다	2 (1.9)	0	2 (1.0)
2. 켈착용의 이유			
간호원의 상징이므로	77(72.0)	38(45.2)	115(60.2)
간호원 복장규범에 따라	30(28.0)	45(53.6)	75(39.3)
나에게 어울리니까	0 (0)	1 (1.2)	1 (0.5)
3. 켈착용의 자유화			
완성	41(38.3)	39(46.4)	80(41.9)
고려	41(38.3)	30(35.7)	71(37.2)
반대	25(23.4)	15(17.9)	40(20.9)
4. 이상적인 켈착용			
반드시 써야 한다	60(56.1)	26(31.0)	86(45.0)
자유에 맡긴다	32(29.9)	35(41.7)	67(35.1)
간호수행상 안 쓴다	15(14.0)	23(27.4)	38(19.9)
총평균치	4.06	5.1	5.52
총표준편차	2.56	2.24	1.99

편리하다」고 반응하거나 「쓰고 안쓰고 가 큰문제시 될 것 없으므로 자유에 맡긴다」라는 반응이(55%) 더 많았다. 이처럼 켈에 대해서 총평균치는 중립적인 점수 4보다 높은 5.52로써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때 켈착용의 자율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바뀔은 국립(4.06)보다 사립(5.1)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4-2 참조).

3. 화장에 대한 반응분포

간호복장에서의 이상적인 화장은 「요란하지 않은 한 약간은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이 대다수(89.0%)였다. 손톱메니큐어는 「요란하지 않은 한 칠해도 무방하다」는 응답률이 70.2%였다. 근무중 손톱질이는 「얼룩상 짙게 잘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65.4%)였다. 발톱메니큐어 역시 파반수가상(66%)이 「요란하지 않은 한 해도 무방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간호원들이 자신의 취향과 기호를 존중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화장에 관련된 항목들을 종합하여 평균내어

〈표 4-3〉

화장에 대한 반응

()=percent

내 용	국 립 N=107	사 립 N=84	전 체 N=191
1. 화장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1.9)	0 (0)	2 (1.0)
약간 하는 것이 좋다	99(92.5)	71(84.5)	170(89.0)
개성대로	6 (5.6)	13(15.5)	19 (9.9)
2. 손톱메니큐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1(29.0)	19(22.6)	50(26.2)
어느정도는 허용	73(68.2)	61(72.6)	134(70.2)
개성대로	3 (2.8)	4 (4.8)	7 (3.7)
3. 손톱기장			
짧게 잘라야 한다	69(64.5)	56(66.7)	125(65.4)
어느정도는 허용	38(35.5)	28(33.3)	66(34.6)
총평균치	5.75	6.17	5.89
총표준편차	2.17	2.30	2.31

〈표 4-4〉

악세사리에 대한 반응

()=percent

내 용	국 립 N=107	사 립 N=84	전 체 N=191
1. 목걸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9(27.1)	26(31.0)	55(28.8)
어느 정도는 허용	70(65.4)	49(58.3)	119(62.3)
개성대로	8 (7.5)	9(10.7)	17 (8.9)
2. 귀걸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5(32.7)	26(31.0)	61(31.9)
어느 정도는 허용	58(54.2)	48(57.1)	106(55.5)
개성대로	14(13.1)	10(11.9)	24(12.6)
3. 장식있는 머리카락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8(16.8)	18(21.4)	36(18.8)
어느 정도는 허용	72(67.3)	58(69.0)	130(68.1)
개성대로	17(15.9)	8 (9.5)	25(13.1)
총평균치	4.83	4.55	4.76
총표준편차	0.55	0.29	0.45

본 결과 총평균치는 5.89로서(중립적점수 4) 종래의 복잡규범을 완화하여 자기의 개성을 따르는 쪽으로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람에서 약간 더 높았다(표 4-3 참조).

4. 악세사리에 대한 반응분포

간호원 복장시 목걸이 귀걸이나 장식있는 머리핀등의 악세사리 사용은 요란스럽지 않은 한 해도 무관하

〈표 4-5〉 유니폼에 대한 반응 () = percent

내 용	국	립	사	립	전	체
	N=107		N=84		N=191	
1. 유니폼유형						
원피스만	17(15.9)	9(10.7)	26(13.6)			
바지 투피스가 간편	31(29.0)	19(22.6)	50(26.2)			
자유화	59(55.1)	56(66.7)	115(60.2)			
2. 유니폼 색상						
흰색만 허용	9 (8.4)	8 (9.5)	17 (8.9)			
별등특색에 따 라	77(72.0)	64(76.2)	141(73.8)			
자유화	21(19.6)	12(14.3)	33(17.3)			
3. 스웨타 색상						
흰색, 검은색, 곤색만 허용	20(18.7)	12(14.3)	32(16.8)			
어느 정도는 허 용	73(68.2)	67(79.8)	140(73.3)			
자유화	14(13.1)	5 (6.0)	19 (9.9)			
4. 스타킹 색상						
흰색, 연한색만 어느 정도는 허 용	51(47.7)	42(50.0)	93(48.7)			
자유화	40(37.4)	33(39.3)	73(38.2)			
자유화	16(15.0)	9(10.7)	25(13.1)			
5. 여름철의 스타 킹 착용						
반드시 착용	8 (7.5)	31(36.9)	39(20.4)			
커버양발정도 자유화	96(89.7)	41(48.8)	137(71.7)			
자유화	3 (2.8)	12(14.3)	15 (7.9)			
6. 스타킹유형						
긴스타킹만	33(30.8)	44(52.4)	77(40.4)			
반스타킹도허용 자유화	7 (6.5)	1 (1.2)	8 (4.2)			
자유화	67(62.6)	39(46.4)	106(55.5)			
7. 구두						
종래규범대로	30(28.0)	22(26.2)	52(27.2)			
샌들도허용	49(45.8)	52(61.9)	101(52.9)			
자유화	28(26.2)	10(11.9)	38(19.9)			
총평균치	12.81	11.72	12.31			
총표준편차	2.31	3.06	2.49			

다는 생각이 모두 과반수 이상이였다. 악세사리 전체에 대한 반응의 총평균치는 4.76으로써(중립적점수3) 이것 역시 종래의 규범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로 해석될 수 있다(표 4-4참조)

5. 유니폼에 대한 반응분포

간호원의 유니폼의 유형에 있어서는 「종래의 규범대로 원피스만 허용하자」는(13.6%)의견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간호활동 수행에는 바지나 투피스가 간편해서 좋다」(26.2%)는 반응과 「각자의 개성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자」는 개방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86.4%) 높았다.

유니폼색상에 있어서도 「종래 규범대로 흰색만 하자」는 반응은 극소수(8.9%)에 불과했으며 「병동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73.8%) 「색상의 제한은 두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유화하는 것이 좋다」가 17.3%로써 즉 규범의 완화를 원하는 응답자가(91.1%) 대다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스웨타색상 역시 「흰색이나 검은색 곤색만 착용하는 게 좋다」(16.8%)는 반응보다는 「요란스럽지 않은 한 어느 색상이든 무관하다」(73.3%)거나 「각자의 개성에 따라 자유에 맡기는게 좋다」(9.9%)는 식의 규범완화를 원하고 있는 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간호원의 스타킹색상에 있어서는 「흰색이나 연한색의 양말이어야 한다」(48.7%)는 종래의 규범을 고수하는 견해보다는 「다소 색상이 진해도 무관」(38.2%)하고 「어떠한 색상이든 간에 자유에 맡기자」(13.1%)는 개방적인 반응이 다소 많았다. 여름철의 스타킹착용에 있어서는 「짧은 커버양발도 허용하자」는 견해가 71.7%로 가장 많았다. 스타킹종류에 있어서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따라서 편리하게 하자」(55.5%)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이었으며 국립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원의 구두선택에 있어서 「종래의 규범대로 하자」는 반응은 소수(27.2%)에 불과했고 「샌들이나 높은 굽도 허용」(52.9%)하며 「각자 개성에 따라 자유에 맡기자」(19.9%)는 규범완화의 요구가 72.8%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유니폼전반에 걸쳐서 본래 총평균치는 12.31(중립적점수 7)로서 이는 간호원들이 종래의 규범에 만족치 않고 개인의 개성을 살리고픈 요구를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유니폼의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도는 국립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내용별로 분류해 본 간호복장에 대한 견해

의 평균치를 전부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았다(표 5 참조).

점수가 높을수록 종래의 간호복장규범을 탈피하여 개성과 능률위주의 새로운 복장규범을 지향하는 즉 개방적인 견해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종래의 간호복장규범을 고수하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립적인 점수는 배경방법에 의해 총 24였다.

〈표 5〉 간호복장에 대한 간호원의 견해

집 단	N	최대 특점	최소 특점	범 위	평균치	표준 편차
국립병원	107	61	13	48	38.03	10.40
사립병원	84	61	8	53	37.57	10.49
전 체	191	61	8	53	37.83	10.42

각 집단별 특점의 범위를 보면 국립병원 48, 사립병원 53이었다. 그리고 평균치와 표준편차는 집단별 간호원의 간호복장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설명해주고 있다. 전반적인 간호복장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총 평균치는 38.82로서 이는 간호원들이 종래의 복장규범을 벗어나 능률과 개성이 고려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개방적 견해를 시사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사립에서보다 국립에서 다소 높았다.

6. 종래간호복장규범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방향

헤어스타일, 켈, 화장, 악세사리, 유니폼을 통털어서 종합적으로 종래 간호복장규범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종래의 간호복장규범이 현실을 의면한 보수적인 경향만 고수한다.」(34%)와 「간호수행에 있어 불편과 비능률성을 초래한

〈표 6〉 「종래 간호복장규범의 문제점」에 대한 반응 ()=percent

내 용	국 립 N=107	사 립 N=84	전 체 N=191
현실 의면한 보수적 경향	40(37.4)	25(29.8)	65(34.0)
각자의 개성을 도외시	27(25.2)	21(25.0)	48(25.1)
간호수행에 비능률적	27(25.2)	26(31.0)	53(27.7)
문제점이 없다	13(12.1)	12(14.3)	25(13.1)
총평균치	1.76	1.71	1.74
총표준편차	0.66	0.70	0.68

다」(27.7%), 「각자의 개성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다」(25.1%)의 순으로서 총응답자의 86.9%가 종래의 간호복장규범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표 6 참조).

〈표 7〉 「간호복장규범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반응 ()=percent

내 용	국 립 N=107	사 립 N=84	전 체 N=191
각자의 개성에 만족	3 (2.8)	7 (8.3)	10 (5.2)
종래의 복장규범 지속	3 (2.8)	2 (2.4)	5 (2.6)
일정한 규정아래 변화 허용	101(94.4)	75(89.3)	176(92.1)
총 평균치	1.94	1.95	1.95
총 표준편차	0.33	0.31	0.32

전반적으로 간호복장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대다수(92.1%)가 「일정한 규정아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었으며 「각자의 개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도 5.2%로 나타나 응답자 거의 전부(97.4%)가 활동적이고 개인의 기호에 맞는 다소 자유로운 복장규범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7 참조)

E. 간호복장에 대한 견해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의 관계

1. 간호복장과 일반적 특성과의 유의도

간호복장(헤어스타일, 켈, 화장, 악세사리, 유니폼)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일반적 특성 8가지의 독립변수 중에서 교육과 근무분야, 근무기관, 결혼여부, 종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3가지의 독립변수, 즉 연령, 경력,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8 참조).

연령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0세미만의 간호원들이 평균점수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는데 가장 높은 적극성 즉, 간호복장규범의 개선 및 자율화에 대해 개방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30 내지 40세미만의 간호원은 평균점수보다 약간 낮은 개방성을 나타내었으나 40세 이상의 간호원은 평균점수보다 훨씬 낮은 가장 소극적인 개방성을 나타내었다(p<0.001). 또한 국립과 사립의 비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립기관에서는 40세미만의 연령층에서는 평균점수보다 높게 복장개선에 개방적인 태도(p<0.01)로 나타

〈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복장에 대한 견해와의 관계

특성 구분	전 체	국 립	사 립
	M±S.D	M±S.D	M±S.D
연령			
25세이하	38.25±9.22	38.58±8.84	37.27±10.69
26~29세	39.92±10.25	39.43±10.69	40.56±9.73
30~39	36.72±8.54	38.79±7.17	35.72±9.08
40세이상	26.43±13.24	26.89±12.99	25.60±15.18
F-test	7.73	4.14	3.90
p	<0.001	<0.01	≤0.01
임상경력			
1년미만	38.31±9.82	37.77±9.54	40.67±12.90
1~3년	40.96±8.42	41.16±8.36	40.70±8.68
3~5년	39.43±10.94	40.17±10.70	38.18±11.56
5~7년	36.84±9.99	35.40±9.97	37.52±10.17
7년이상	33.05±11.07	32.63±11.37	33.58±10.96
F-test	3.73	3.00	1.45
p	<0.005	<0.05	>0.05
직위			
평간호원	38.79±9.54	39.05±9.07	38.45±10.19
수간호원	35.35±12.08	34.47±14.74	36.43±8.21
감독이상	29.12±14.90	31.25±13.18	27.00±18.24
F-test	4.47	2.31	2.43
p	<0.01	>0.05	>0.05

났으나 사립기관에서는 30세이상의 간호원에게서 평균 점수보다 다소 낮은 개방성을 나타내었다(p≤0.1).

이처럼 연령이 많을수록 복장 규범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띠고 있음은 연령차에 의한 세대차에서 비롯된 일반적 추세로 해석할 수 있다.

임상경력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전체 간호원중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간호원이 복장개선에 평균점수 이상의 높은 적극적 개방성을 나타내었는데 그 중에서도 임상경력이 1년에서 3년사이의 간호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원은 평균점수보다 낮은 개방성을 나타냈다. 또한 7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원은 평균점수보다 낮은 개방성을 나타냄으로써 연령과의 상관관계에서 보여준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p<0.005).

국립과 사립병원의 비교에 있어서는 국립병원에서는 1년미만의 경력간호원은 평 점수보다 다소 낮은 개방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래 간호복장 규범의 문제점간의 관계

특성 구분	전 체	국 립	사 립
	M±S.D	M±S.D	M±S.D
연령			
25세이하	1.82±.58	1.82±.58	1.82±.60
26~29세	1.89±.46	1.88±.48	1.90±.45
30~39세	1.67±.75	1.86±.53	1.59±.82
40세이상	0.71±.99	0.67±1.00	0.80±1.10
F-test	15.36	11.91	4.63
p	≤.001	<.001	≤.005
근무분야			
내과	2.00±0	2.00±0	2.00±0
외과	1.83±.58	2.00±0	1.71±.73
산부인과	1.90±.44	1.75±.71	2.00±0
소아과	1.83±.58	2.00±0	1.82±.60
정신과	1.70±.72	1.68±.74	2.00±0
기타	1.56±.84	1.72±.70	1.40±.93
F-test	1.98	0.69	2.38
p	>.05	>.05	<.05
경력			
1년미만	1.75±.68	1.69±.75	2.00±0
1~3년	1.89±.46	1.94±.36	1.83±.58
3~5년	1.91±.41	1.93±.37	1.88±.49
5~7년	1.68±.75	1.60±.84	1.71±.72
7년이상	1.44±.91	1.42±.93	1.47±.90
F-test	4.57	3.10	2.18
p	≤.001	<.05	N.S
직위			
평간호원	1.79±.62	1.84±.55	1.73±.69
수간호원	1.68±.75	1.53±.87	1.86±.53
감독이상	1.00±1.07	1.00±1.15	1.00±1.15
F-test	5.58	4.62	2.44
p	<.005	<.01	>.05

성을 나타내었다(p<0.05).

위의 결과에서 임상경력 1년에서 3년 사이의 간호원이 간호복장규범개선에 가장 적극적 개방성을 띤 것은 젊은 연령층인데다 1년미만 3년정도의 임상경력을 통해서 간호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한 응답일 것으로 사려되며 이에 그들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위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국립병원이나 사립병원에서 모두 평균간호원만이 평균점수이상의 적극적 개방성을 나타내었고 수간호원은 평균점수보다 다소 낮게 감독이상은 평균점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p \leq 0.01$). 이처럼 지위가 올라 갈수록 부장규범개선에 소극적인 양상을 띠는 것은 연령이나 경력과 관계되는 일반적인 추세라고 사려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래간호부장규범간의 관계

종래 간호부장규범의 문제점에 관하여 특성 8가지의 독립변수중에서 4가지의 독립변수 즉 연령, 근무분야, 경력,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9 참조).

연령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30세미만의 간호원들이 평균점수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에서도 26내지 29세의 연령층이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p \leq 0.001$). 즉, 종래간호부장규범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각자의 개성을 너무 도의시하는 한편 간호수행에 있어서도 불평과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근무분야에 있어서는 전체적 반응이 종래 간호부장규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과에 근무하는 응답자는 문제점에 전연 모두 동의하였으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정신과에서도 평균점수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였으나 전체응답자의 상관관계 및 국립병원과의 상관관계 유의도검증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 > 0.05$). 그러나 사립병원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 모두 종래 간호부장규범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유의도 검증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경력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근무경력 3년내지 5년의 간호원들이 종래간호부장규범의 문제점을 가장 높게 지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원도 평균점수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근무경력 5년이상 부되는 경력이 많을 수록 평균점수이하로 나타나서 연령과의 비례에서 오게 된 즉,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나타났다.

직위에 있어서는 종래간호부장규범의 문제점에 대해 전체응답자중 평균간호원이 평균치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수간호원, 감독의 순으로써 감독의 경우는 중립적인 태도 즉 종래간호부장규범에 대해 고려해 볼 만하다는 태도를 나타내었으며($p < 0.005$) 국립병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10〉 「간호부장규범의 앞으로의 방향」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간의 관계

특성 구분	전 체	국 립	사 립
	M±S.D	M±S.D	M±S.D
연령			
25세이하	2.00±0	2.00±0	2.00±0
26~29세	1.98±.21	1.96±.28	2.00±0
30~39세	1.91±.43	1.86±.53	1.93±.37
40세이상	1.71±.73	1.78±.67	1.60±.89
F-test	3.50	1.45	2.82
p	<.05	>.05	<.05
직위			
평균간호원	1.97±.23	1.98±.22	1.97±0.25
수간호원	1.87±.50	1.76±.66	2.00±0
감독이상	1.75±.71	2.00±0	1.50±1.00
F-test	2.98	3.08	5.08
p	≤.05	≤.05	<.01

($p \leq 0.01$).

사립병원에서는 수간호원이 평균간호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강조했으나 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3. 간호부장규범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간호부장규범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에 관하여 일반적 특성 8가지 중에서 2가지 즉 연령과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0참조).

연령과의 관계에서 전체응답자 중에서 25세이하의 간호원, 사립병원에서는 30세이하의 간호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앞으로의 간호부장규범의 방향은 시대적 호응에 따라 일정한 규범아래 변화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p < 0.05$).

직위와의 관계에서도 간호부장규범에 있어서의 변화 허용에 대한 반응이 평균간호원일수록 높았는데 국립에서는 감독급에서 사립기관에서는 수간호원의 경우에서 전연 일치의 찬성이 나타났다($p < 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원들의 간호부장실태 및 기관의 부장허용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하여 간호부장

규범에 대한 견해 및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새로운 간호복장규범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본 연구조사를 위하여 1982년 2월 1일부터 동년 3월 2일까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대학병원과 국립병원 각각 두 곳을 선정하여 그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원 1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근거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임상병원에서 간호원들의 근무복장실태는 종래의 간호복장규범을 고수하고 있는 경향이었는데 국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더 높았다.

2. 임상병원의 간호복장허용도에 있어서 국립병원이 사립병원보다 종래의 간호복장규범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으나 병원의 복장허용도에 대한 인식도는 동일병원내에서도 응답자간에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3. 간호원의 간호복장규범에 대한 견해는 종래의 규범이 개인의 개성을 도의시할 뿐 아니라 간호수행에 불편하므로 일정한 규정아래 개인의 개성이 고려된 개방적인 방향으로의 재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간호원복장규범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연령, 근무경력, 직위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임상경력이 짧을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더 강렬하게 간호복장규범에 자유로운 재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과제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복장이 간호업무수행에 끼치는 영향과 시대적 호응을 인식하고서 개인의 개성이 고려된 간편하고

활동적인, 새로 구현된 복장규범이 모색되어야하며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2. 각 병원별로는 간호복장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고 올바른 간호복장에 대한 교육이나 계몽이 간호원들에게 필요하다.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에 신뢰성을 높이는 기초분석이 상이한 배경에서 대상자를 달리하여 연구를 시도할 때 필요하다.

4. 지방간호원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이들 도시간호원의 견해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 간협홍보부(1971), 간호원의 이상적인 유형과 복차림, 대한간호, 10권5호, pp. 64~65.
- —————(1972), 간호원의 복장은 이렇게, 대한간호, 11권5호, pp. 65~66.
- —————(1972), 한국간호원의 윤리강령, 대한간호, 11권4호, p. 69.
- 김경울(1980), 심리학개론, 학문사, 서울
- 윤수복(1965), 간호원과 유니폼, 대한간호, 4권1호, pp. 58~60.
- 이영복(1972), 한국간호원의 윤리강령해설, 대한간호, 11권 3호, pp. 9~12.
- 이희승(1968),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 Nie, N.H., C.H. Hull, J.G. Jenkins, Karin Steinbrenner, and D.H. Bent(1975), Statistical package-program for the social science, 2nd ed., N.Y.: McGraw Hill Co.
- Henry Bosley Woolf (ed.) (1973),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G.& C. Merriam Co., p. 805.

—ABSTRACT—

A Survey on Nurses' Opinions of Their Working Uniform

Cho, Young Sook

(Rail Road Junior College of Nur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ttitudes of some nurses about their uniform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some variables which effect their attitudes and thus to contribute to the nursing profession by providing some suggestions in making more desirable working uniform.

The study groups in this research consist of 191 nurses working in National Hospital in Seoul and in a privat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The questionnaires have been distributed and collected between Feb. 1, 1982 and Mar. 2, 1982.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both study groups are in favor of liberal and open attitudes about their uniform.
2. The meaningful variables that effect significantly the attitudes are age, working experiences, and rank of position. a) The nurses at lower ages tend to have more liberal and open attitudes towards their uniform ($p < .001$). b) The nurses with shorter working experiences tend to have more open and liberal attitudes ($p < .005$). c) The nurses in lower position tend to have more liberal and open attitudes ($p \leq .01$).

To conclude, the study findings reveal the fact that many nurses believe their present uniform is in short of meeting their need for being practical with a tendency to ignore individual taste but rather insists on our traditional value. The study outcome pointed out the liberal and open attitudes that the current nursing uniform should be allowed for some positive change in away that it can become more effective and convenient in performing their work. ■